

“열네살 손등 갈라져가며 매일 강제노역 일본 사과 받아 동무 恨까지 풀고 갈 것”



9일 광주시 서구 자택에서 양금덕(84) 할머니가 70여년 전 당시 미쓰비시 항공기 제작소에서 착취 당했던 아픈 기억을 고집어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복 70주년 끝나지 않은 이야기

<2>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나주 양금덕 할머니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누구도 잊을 수 없는 광복(光復)의 날. 어느덧 70주년이 다가왔다.

뽕나무 잎이 푸른 바다로 변화듯 세상은 물라 보게 바뀌었지만 아직도 변하지 않는 게 있다. 10대 초반의 어린 아이들을 강제노역에 동원하고도 진정한 사과 한 마디 없는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의 후안무치한 태도다.

그날을 또렷히 기억하는 양금덕(84) 할머니에게 광복절의 의미는 남다르다. 지난 수십 년간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인 미쓰비시를 상대로 진정한 사죄를 요구하며 법정 다툼을 지속해온 그에게 이날은 다시금 힘을 북돋우고 싸움 기력을 충전하는 날이다.

그는 지난 1999년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를 상대로 진정한 사죄를 요구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이후 지금까지 끝까지 싸움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

중학교 보내준단 말에 전남 소녀 130명과 항공기 제작소로 18개월간 매일 10시간씩 도색... 돌아온 고향선 위안부 오해 16년째 미쓰비시 상대 법정 싸움... “죽는 날까지 역사 증언”

그는 매년 광복절이 될 무렵이면 자신의 빛바랜 과거 사진을 바라보며 당시의 참혹한 기억을 조심스레 끄집어낸다. 살육을 도려내는 듯한 아픈 기억이지만 그날의 기억을 토해내 기어코 끝나지 않는 과거문제, 일본 정부 등의 진정한 사과를 생전에 받아내기 위해서다.

그는 나주 대정소학교(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던 지난 1944년 5월 30일 현 해탄을 건넜다. 일본 나고야 미쓰비시 항공기 제작소에서 일하면 중학교도 보내주고 월급도 많이 준다는 대정소학교 교장을 말을 듣고서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공장에서 하루의 시작과 끝은 매질로 시작해 매질로 끝났다. 당시 14살이던 그의 어린 손에 쥐어진 것은 필기구와 교과서가 다름 아닌 시너 통과 출감이었다.

고사리 같은 손에선 고된 노동에 하루가 멀다하고 살이 터졌지만 작업은 멈출 수 없었다. 공장 감독관에게 걸리면 매질을 당하거나 곡기(穀氣)가 끊겼기 때문이다.

그의 하루 노동시간은 10시간 이상이

었지만 주어진 월급은 한 푼도 없었다. 소학교 교장이 말한 것은 모두 거짓이었다.

그의 지옥 같은 삶은 18개월 만에 끝이 났다. 그토록 염원하던 조국의 해방이 찾아온 것이다. 하지만 끝날 것만 같던 그의 지옥 같은 삶은 또다시 시작됐다. 그날의 아픈 상처는 ‘위안부’라는 명예를 뒤집어 씌운 채 그를 괴롭혔다. 그는 지난 1951년 견축일을 하던 남편과 결혼을 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평탄치 않았다. 남편은 일본어를 잘하는 그에게 “일본 말을 잘하는 이유를 알겠다. 일본인을 맞이할 상대였나”고 다그치더니 자녀 두 명을 두고 집을 떠났다.

남편이 근로정신대를 위안부로 착각해 괴롭힌 것이다. 이후 10년 만에 다른 여자 사이에 낳은 딸 한 명을 데리고 다시 돌아온 남편은 2년 만에 폐병으로 사망했다.

서른 여섯에 가장이 된 그는 자녀와 친정 어머니, 조카 등 11명의 식구들을 먹여 살렸다. 그는 어린 딸을 들쳐 업고

옛 광주역 앞과 대인시장에서 행상을 하며 억척같이 지냈지만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가세는 더욱 기울어 갔다.

하지만 그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잊지 않는 게 있었다. 자신의 평범한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그날의 아픔을 보상받고 명예회복을 하는 것이었다.

그는 지난 1999년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를 상대로 진정한 사죄를 요구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지난 2009년 일본 정부 측으로부터 연금 99엔(한화 1300원)을 지급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받아낸 뒤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2009년 208일 동안 미쓰비시 자동차 광주전시장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여 국내 모든 영업장 잠정 폐쇄라는 결실을 얻기도 했다. 죽기 전에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측으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아내겠다는 그는 이날도 끝나지 않는 싸움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후대에 부끄러운 이로 기억되지 않기 위해서다.

10여 평 남짓한 집에서 기초생활수급비와 노령연금 40여 만 원으로 생활을 이어가는 양 할머니는 “진정한 사과를 받고 응당한 배상을 받으면 그 돈은 또 다른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해 쓰고 싶다”고 말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48 해질 01:45
해짐 19:28 달짐 16:00

입추 지났는데-덥다 더워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구름많음	24/33	보성	구름많음	22/32
목포	구름많음	24/31	순천	구름많음	25/33
여수	구름많음	25/30	영광	구름많음	22/33
나주	구름많음	23/33	진도	구름많음	23/31
완도	구름많음	24/30	전주	구름많음	23/32
구례	구름많음	23/35	군산	구름많음	22/31
강진	구름많음	23/31	남원	구름많음	22/32
해남	구름많음	23/31	홍산도	구름많음	22/28
장성	구름많음	21/32			

바다 날씨

시/도	해역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북~북동	0.5~1.5	북~북동	0.5~1.0
	남부	북~북동	1.0~2.5	북~북동	1.0~2.0
남해	서부	북~북동	0.5~1.5	북~북동	0.5~1.5
	서부	북~북동	1.0~2.0	북~북동	1.0~2.0
남해	서부	북~북동	1.0~2.0	북~북동	1.0~2.0
	서부	북~북동	1.0~2.0	북~북동	1.0~2.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시각	수위	시각	수위
여수	10:22	03:54	23:31	16:04
	05:52	11:55	18:44	23:54

주간 날씨

11(화)	12(수)	13(목)	14(금)	15(토)	16(일)	17(월)
☁	☁	☁	☁	☁	☁	☁
23/30	24/27	24/28	24/30	24/30	24/31	24/31

생활지수

주의	식중독	30	운동	70
			빨래	

죽산보, 녹조 확산에 수질 ‘관심단계’

녹조가 확산하고 있는 영산강 죽산보 구간에 수질에보 관심단계가 발령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영산강 중류인 죽산보 구간에 녹조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지난 6일 수질에보 ‘관심단계’를 발령했다고 9일 밝혔다. 영산강의 경우 4대강 공사 이후 유속이 사실상 ‘제로(0)’에 가까운 데다 폭염이 이어지고 있어 녹조가 급격하게 확산하고 있는 추세다.

영산강환경청은 지난 6일 죽산보 500m 상류 지점의 수질을 측정할 결과, 클로로필-a 농도가 66mg/m³, 유해 남조류 세포 수가 1만7000개/m³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죽산보, 녹조 확산에 수질 ‘관심단계’

죽산보, 녹조 확산에 수질 ‘관심단계’

죽산보, 녹조 확산에 수질 ‘관심단계’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교육국장 김재인·유아교육진흥원장 박형심

전남도교육청 보직인사

전남도교육청은 분청 교육국장에게 김재인,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임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보직인사를 지난 7일 발표했다.

분청 교육국장은 김재인,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전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에 박형심, 분청 유아교육담당장관이 임용됐다.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최성수, 목포 영산초 교장에, 곡성교육지원청 교육장에

박찬주, 전남학생교육원 교육기획부장이 선임됐다.

장성교육지원청 교육장에는 이영만, 화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은, 신안교육지원청 교육장에는 정인상, 해남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은 임용됐다. 도교육청은 학생 중심의 교육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원 인사는 교장에 대한 정부 발령 이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10여년을 고객과 함께한 전국1위 골프멤버십
전국 명문 300여개 골프장 무기명4인 주중, 주말

정회원 선불 특별회원 모집 호남, 제주 그린피 전액지원

상품안내

단위 : 만원(VAT별도)

구분	다이렉트1	다이렉트2	퍼펙트(법인)	프라임
총액	3600	1050	1600	950
통장보증	3000			
입회금	600	1050	1600	950
이용기간	5년 180회	5년 180회	5년 280회	5년 140회
이용횟수	월4회 년36회	월4회 년36회	월6회 년56회	월3회 년28회
회원등재	본인+무기명	본인+무기명	본인+무기명3	본인+무기명

* 주중/주말 사용 가능(자세한 내용은 상담바랍니다)

선불 특별회원 가입안내

- 전국 골프장 주중, 주말 정회원 대우 그린피 혜택
- 호남, 제주 그린피 전액 지원
- 법인 무기명 4인 사용 가능
- 동남아, 중국 무료라운딩(동절기)
- 년2회 국내 및 해외 회원 초청행사



상담문의
(주)리즈골프 (062)371-1800

리즈골프는 2002년도에 설립되어 업계 최다수의 회원님들을 서비스 관리해 드리고 있는 고객만족도 최고의 회사입니다.